■ 특별기획II / '유사 조계종' 대비책 필요하다 – 각계 여론(下) 교구본사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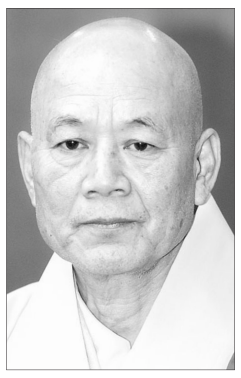
"정통성 계승 대한불교조계종 보호해야"

대한불교조계종과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단체들이 늘면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본지 조사결과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곳이 69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해 대한불교조계종의 역사성과 정통성에 편승해 국민과 불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본지는 지난 6월 3회에 걸쳐 '대한불교조계종 유사명칭 대책 필요하다' 는 보도에 이어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폐단' 을 지적하고자 두 번째 특별기획을 마련했다. 이번 특별기획에서는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각계의 반응을 싣는다.

유사 종명 TV광고 등으로 시청자들 오도
"제도적 한계 이유…종단 난립 방치" 지적
"심각성 인식…정부 차원 대책 강구" 여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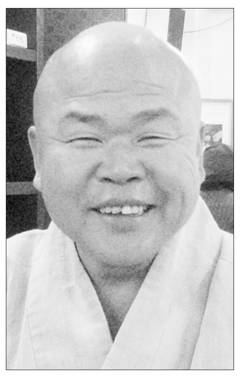
교구본사 주지스님들도 유사 조계종 난립 현상에 대해 한 목소리로 우려를 나타냈다. 덕숭총림 수덕사 주지 옹산스님, 제10교구본사 은해사 주지 돈관스님, 제23교구본사 관음사 주지 원종스님은 "조계종 명칭을 사용하는 곳이 수십 개에 이른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면서 "유사 조계종의 난립으로 인한 피해를 종단이 고스란히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은 유사 조계종의 난립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정부 차원에서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덕숭총림 수덕사 주지 옹산스님은 "조계종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곳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정부 당국의 자세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옹산스님은 "한국불교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있는 대한불교조계종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현행 (국가) 법률과 제도에 문제가 분명 있다"면서 "(정부에서) 지금처럼 난립하게 방치한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수덕사 주지 옹산스님은 정부차원의 법적 장치 마련을 재차 촉구했다. 옹산스님은 "정부에서 한국불교의 정통성을 계승한 조계종을 보호하고 조계종 종도를 보호해야 한다"면서 "관리들이 탁상공론으로 한국불교의 역사적 전통과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옹산스님

돈관스님



원종스님

제10교구본사 은해사 주지 돈관스님은 "신도들로부터 유사 조계종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다"면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돈관스님은 "현행 법률상 막을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면서 "그렇다면 조계종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도 조심스럽지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돈관스님은 "종단에서도 유사 조계종 명칭 난립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23교구본사 관음사 주지 원종스님도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곳이 70여 곳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다고 하니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원종스님은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모 단체의 경우 TV 광고를 통해 마치 대한불교조계종인 것처럼 시청자들을 오도하고 있다"면서 "지방에서 행사를 할 경우에도 이같은 사례를 여러 차례 목격했다"고 말했다. "이들로 인해 우리 종단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한 원종스님은 "종단에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다"면서 "하지만 종명(宗名)을 바꾸는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 역대 큰스님들이 유지 전승해 온 조계종 명칭을 우리 스스로 바꾸는 것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덕숭총림 수덕사 주지 옹산스님은 종정이나 총무원장 등의 소임 명칭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현실에 대해서도 비판을 제기했다. 옹산스님은 "유사종단에서 종정이나 총무원장 등 각종 소임 명칭을 우리 종단과 똑같은 것을 사용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면서 "말사 규모도 되지 않는 곳에서 조계종 명칭을 사용하고, 소임 명칭도 같은 것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옹산스님은 종단에서 유사 조계종에 대해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대한불교조계종의 위상이 실추되는 것은 물론 불교계 상황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에게 종단에 대한 신뢰가 추락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옹산스님은 "중앙종회나 본사주지들이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 '대한불교조계종' 유사명칭 사례

국제불교조계종					한국불교전법조계종
국제선불교조계종					한국불교전통조계종
근본불교조계종	대한불교⊙조계종	대한불교선조계종	대한불교호국조계종	일붕조계종	한국불교조계종
금강불교조계종	대한불교○조계종	대한불교여래조계종	대한불교화엄조계종	임제조계종	한국불교지장조계종
대륜불교조계종	대한불교광명조계종	대한불교연합조계종	대한선불교조계종	전통불교조계종	한국불교화합조계종
대불교조계종	대한불교대승조계종	대한불교우리조계종	대한정토불교조계종	정토불교조계종	한국생활불교조계종
대선불교조계종	대한불교동산조계종	대한불교율사조계종	불교조계종삼화불교	중앙불교조계종	한국선불교조계종
대성불교조계종	대한불교법안조계종	대한불교일붕조계종	삼론조계종	총남불교조계종	한국호국불교조계종
대승불교조계종	대한불교보현조계종	대한불교전통조계종	삼보조계종	한국근본불교조계종	해동불교임제조계종
대원불교조계종	대한불교본조계종	대한불교정화조계종	선불교조계종	한국대승불교조계종	해동불교조계종
대중불교조계종	대한불교불일조계종	대한불교조계선종	우리불교조계종	한국불교극락조계종	화쟁평화중앙교원현대불교조계종
대한국불교조계종	대한불교佛조계종	대한불교조계율종	원조조계종	한국불교대승조계종	환국불교조계종
대한미타조계종	대한불교삼보조계종	대한불교조계종통합불교연합	육조혜능조계종	한국불교법안조계종	

유인촌 장관-7대 종단 지도자 간담회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2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7대 종단 지도자 초청오찬 간담회를 갖고 종교계 화합 방안과 사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해 김희중 천주교주교회의 대화위원장, 최근덕 성균관장, 이광선 한기총 대표회장, 임운길 천도교 교령, 김주원 원불교 교정원장, 한양원 민족종교협의회 회장 등의 종교지도자가 참석했다.

장영섭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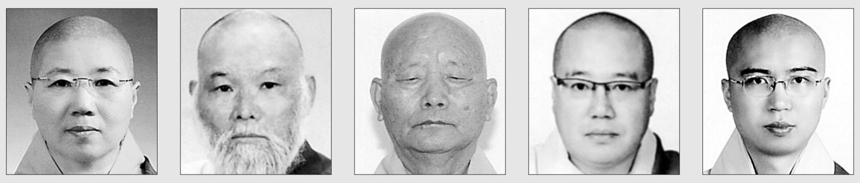
본·말사 주지인사

7월23일 종무회의 결과

법장스님 서울 무진법장사 | 일화스님 대전 관음사 | 성연스님 충주 앙성 용화사 | 현담스님 안성 석남사 | 도문스님 수원 청련암

도견스님 철원 도피안사 | 혜문스님 대전 비래사 | 선일스님 대전 고산사 | 창엄스님 아산 인취사 | 견신스님 완주 관동암

육문스님 군위 법주사 | 법진스님 경주 연지암 | 도연스님 경주 황룡사 | 정인스님 함양 문수사 | 진광스님 대구 금강사



도정스님 마산 금륜사 | 일공스님 사천 염불암 | 백운스님 부산 미륵사 | 원일스님 부산 금용암 | 선호스님 통도사 울산전법회관

정도스님 통도사 양산전법회관 | 도오스님 부산 보광사 | 정현스님 울산 백련사 | 지광스님 뉴욕 원각사 | 용담스님 안동 대원사

도연스님 군산 상주사 | 성우스님 군산 은적사 | 정공스님 강릉 성원사 | 도홍스님 양평 대성사 | 지행스님 가평 축령사

불기2554(2010)년도 2급 승가고시 시행 공고

불기2554(2010)년 조계종 대덕 법계 품수를 위한 2급 승가고시를 법계법 제 11조, 승가고시법 제 9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해당 스님들께서는 빠짐없이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고시 일시** : 불기2554(2010)년 **11**월 **4**일(목) **13시**
※ **고시 장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
※ **응시 자격** : 2001년 제1회 3급 승가고시에 합격한 자
※ **접수 기간** : 불기2554(2010)년 **8**월 **30**일(음 7. 21) ~ **9**월 **10**일(음 8. 3)
※ **전 형 료** : 10만원[국민은행 계좌번호 023-01-0534-462(예금주 :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 **시험 과목 및 유형·배점**

시간	과 목	유형	배점
1교시	교학, 선, 포교, 복지, 사회(생태환경·통일) 중 택 1	논술	100점
2교시	수행이력 평가	면접	200점
합 계		300점	

※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소정 양식, 종단 홈페이지 및 교구본사 비치)
나. 수행이력서(소정양식, 종단 홈페이지 및 교구본사 비치) – A4용지 5매 이상(한글, 글자포인트 12)
다. 수행이력 증빙 자료(졸업증명서, 안거증, 임명장, 자격증, 교육수료증 등)

※ **합격자 발표**
합격자 명단은 2010년 11월 12일(금), 종단 홈페이지(http://www.buddhism.or.kr)에 게시합니다.

※ **유의 사항**
가. 각 과목별 40점 이상, 전 과목 총점 평균이 60점 이상이면 통과됩니다.
나. 본 공고문의 내용은 조계종 홈페이지(http://www.buddhism.or.kr 공지사항)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 및 수행이력서**는 교육원과 교구본사에 소정양식이 비치되어 있으며, 종단홈페이지(홈페이지⇒종무자료실⇒종무자료⇒교육원)에서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라. 2급 승가고시 응시원서 작성 시 1교시 논술은 반드시 선택과목을 기재하기 바랍니다. **(선택 이후 과목 변경 불가함)**
마. 수행이력서는 내(외)전 교육 경력, 안거, 포교·복지·사회활동, 소임 등 양식에 맞게 작성해 주시고, 특히 수행이력을 확인하여 점수에 반영하오니 이점 유의하시어 상세히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응시원서란에 '키, 가슴둘레, 몸무게' 등은 가사제작을 위한 것이오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고시를 위한 개별통지는 시행하지 않으니 신문공고, 종단 홈페이지 등의 내용을 살펴 기간 내에 접수하기 바랍니다.
아.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판명될 시 고시합격을 취소합니다.

불기2554(2010)년 8월

대한불교조계종 고시위원장 종 석
대한불교조계종 교 육 원 장 현 응